

2020년 충남! 비전과 종합발전방향 새롭게 정립

- 지난 2. 28일 국토부승인 충청
남도 종합계획 확정 공고

충청남도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道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3월 8일자로 확정 공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8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이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과 연계성,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정 이념 구현, 그리고 세종시 및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과학벨트 조성 등 지역의 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장기발전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최근 대내외적 여건변화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기조로 설정하고 살기 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근심 없는 주거·복지·평생교육 실현,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관리를 7대 중점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종합계획에 의하면 목표년도인 2020년에 충남은 인구가 2009년 207만명에서 240만명으로 지역총생산액은 2009년 67조 550억원에서 125조 7,870억원, 1인당 GRDP

는 2009년 3,231만원에서 5,241만원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2009년 77.7%에서 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기간동안 67조 3,217억원이 투자되고, 부문별로는 산업경제 부분 24.6%로 가장 높고, 교통정보 인프라 부분 24.0%, 지역개발 도시농촌부분 23.2%, 환경방재 부문 11.9%, 문화관광 부분 11.0%, 지역자원개발 부분 4.0%, 생활복지 부분이 1.3%이며, 재월별로는 국비가 25조 3,859억원(37.7%), 지방비는 10조 9,709억원(16.3%), 민자 등 기타가 30조 9,649억원(46.0%)이다.

그동안 도에서는 내실있는 도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道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십 회의 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고, 道홈페이지에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고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道의회 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다.

주민이 사장·직원 '마을기업' 32곳 선정

- 최장 2년 최대 8천만원 지원...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올 3월에 선정된 마을기업을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광덕마을회 1개, 공주시는 무르실마

을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보령시 서해나눔 등 2개, 아산시 다라미 자운영전통테마마을 등 5개, 서산시 팔봉영농조합법인 등 5개, 논산시 포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3개, 당진시 올리고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2개, 서천군 송림영농조합법인 등 2개, 청양군 꽃피 영농조합법인 등 3개, 홍성군 내현권역추진위 영농조합법인 등 3개, 예산군 전통어머니 손맛 등 2개 태안군 꾸지나 무골 영농조합법인 1곳 등이다.

이들 마을에 도가 올해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10억9천만원이다.

선정 마을기업 중 특히 올해 2년차에 접어드는 천안 광덕마을회는 지난해 3천200만원 매출에 순수익 1천700만원, 공주시 무르실마을 영농조합법인은 김치체험관과 치즈스쿨 운영 등으로 4천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청양 꽃피영농조합법인은 맥문동 직수매 및 계약재배 가공 판매 사업 등을 통해 2010년 5천만원 매출에 순수익 2천만원, 지난해 2억원 매출에 8천4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려 마을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마을 스스로 마을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시 군별 마을기업지원단 설치 등 지원책을 통해 마을기업의 수익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고, 사회적기업으로 연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1억명 시대 관광개발 새틀 나왔다

-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확정...비전으로 '애향 충남' 제시

충남도가 관광객 1억명 시대에 걸 맞는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단순히 찾아와 구경하고 즐기는 관광을 넘어 복지와 산업, 녹색, 공정 등의 개념을 도입, 지역 신성장동력으로서 관광의 새 틀을 제시했다.



2월 29일 도가 최근 확정된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에 따르면, '지방관광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희망을 주는 애향 충청남도'를 비전으로 정했다.

목표는 전국민이 찾는 '국민관광', 모두가 이용하고 향유하는 '복지관광', 글로벌 관광명소가 자랑인 '휴양관광', 구석구석 균형성장하는 '산업관광' 등 4가지로 잡았다.

추진 전략은 허니포트형 관광도시 개발과 권역별 연계망 구축, 지방형 관광지 조성

관광코스 활성화, 주민과 만남이 있는 착한 여행 추진, 소외계층의 관광향유 기회확대와 유니버설 관광지 조성, 차별화된 유무형 관광자원과 녹색관광산업 육성, 국제적 전략적 메가급 이벤트와 축제의 육성, 지역문화권 관광자원화 국제휴양관광명소 개발, 지역 관광사업체 육성과 맞춤형 관광 마케팅 강화 등이다.

공간적으로는 해양도서, 내포문화, 역사온천, 백제금강, 녹색유교 등 5개 관광권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보면 태안, 보령, 서천을 포함하는 '해양도서 관광권'은 서해안 해양 관광거점과 관광 레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휴양 관광지역으로, 서산, 당진, 예산, 홍성을 포함하는 '내포문화 관광권'은 내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관광자원이 연계하는 역사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산, 천안을 포함하는 '역사온천 관광권'은 충절의 인문문화자원과 천혜의 온천자원을 연계한 문화 휴양 관광지역으로, 공주, 부여, 청양 등 '백제금강 관광권'은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 생태축을 연계한 역사, 생태관광 지역으로, 계룡, 논산, 금산 등 '녹색유교 관광권'은 쾌적한 산림자원 환경과 유교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는 녹색, 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계획 기간 동안 투자비는 총 1조964억원으로 관광지 개발에 7천265억원, 핵심 전략사업 1천821억원, 전략 추진사업 380억원 관광진흥사업에 1천498억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5천105억원을 투입하며 내년 1천467억원, 2014년 1천680억원, 2015년 1천445억원, 2016년 1천267억원 등이다.

문예진흥기금 399건 10억원 지원 확정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지원
금 작년보다 2천1백만원 줄어

충남도는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대상 사업에 399건을 선정, 모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지역 예술 저변 확대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날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 분야 및 지원 금액을 보면, 문학 57건 107백만원, 미술 115건 262백만원, 공연예술 58건 179백만원, 전통예술 61건 146백만원, 청소년 문예활동은 47건 126백만원, 종합예술 35건 97백만원, 국제교류 10건 25백만원, 기타 16건 58백만원이 지원한다.

금년 지원 규모는 지난해 417개 사업 10억2천100만원에 비해 2천1백만원이 줄어든 것이나, 올해 신청건수(521건) 고려시 신청대비 76.5% 선정률로 상대적으로 전년 선정률(89%) 과 비교할시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감소한 상황이다.

도는 선정 내용을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공개한 뒤 3월부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